

John Oswalt 박사, 열왕기, 세션 17,

1부 열왕기하 1-2장, 1부

©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계속되는 열왕기 연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 첫째에서 열왕기 둘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회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책이 실제로 한 권의 책이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의 기록이 열왕기상 1장 맨 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22장은 51절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 이야기는 2장(죄송합니다), 2권, 1장으로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1장 18절에서 아하시야 이야기의 결론을 얻습니다. 순전히 기계적이며 내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시작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사의 사건들을 주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전염병에 직면할 때, 선거의 난관에 직면할 때,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의 힘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연구에서 이에 대한 증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그 진리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며, 당신이 참으로 왕이시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부분은 열왕기상 22, 15장에서 시작하여 열왕기하 1장 18절까지 계속되는 엘리야와 아하시야입니다. 22장 끝 부분에 있는 마지막 서문 단락에서 우리는 아하시야를 전형적인 방식으로 소개합니다. 즉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새로운 반전이 있다. 지금까지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뒤를 쫓아 여호와를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은 남쪽의 벰엘과 북쪽의 단에 금 우상을 세웠는데, 그것은 황소의 우상이요, 권력을 상징하고, 다산을 상징하고, 땅이 인간 생명에 가져올 수 있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당연히 문제입니다. 여호와와 이 땅의 권세를 대표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와 이 땅의 능력의 근원입니다.

그는 창조 너머에 살아 계십니다. 그는 창조의 일부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이 그들을 유혹한 죄, 곧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이 연구에서 말했듯이, 그것은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것처럼 야훼의 놀라운 점은 그분이 초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창조물이 아닙니다.

일단 허락하면 온갖 일이 따라옵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을 추구할 시간이 없지만, 우선 우주 밖의 창조자가 우주를 존재하게 했다면 창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목적은 성경적 이해를 통해 빛을 발합니다.

구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조건화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초월의 의미 중 두 가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우상 숭배 문제는 단순히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느냐, 만들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도 없는 성격의 일부로 만들거나 그가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위대하고 신성한 목적에 따라 우리에게 변화의 가능성을 가져오십시오.

여로보암이 바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아하시야에 대한 설명을 보면 그 이상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2절입니다.

그가 그의 부모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으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었습니다. 아하시야의 아버지와 어머니, 아합과 이세벨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사실 그것은 단지 우상 숭배적인 방식으로 야훼를 숭배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야훼를 대신하고 그 신, 가나안의 다산의 신, 바알 신을 데려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판단 기준이 등장했고 새로운 위기가 도래했음을 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단계로 이루어진 단일 사역인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은 이 질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야훼는 과연 대체될 것인가? 단순히 이 세상에 끌려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 밖으로 끌려나와서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선반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하시야를 봅니다. 그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통치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이제 다시 우리는 연대기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1년 조금 넘게 통치했을지 모르지만 2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에 따르면 그는 2년 동안 통치했지만 단지 2년만 통치했습니다. 1장의 시작 부분에서 그는 궁전 격자 사이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는 북왕국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의 장남이 병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로보암은 자기에게 기름을 부은 선지자, 곧 여호와의 선지자 아히야에게 사람을 보내 그 아들의 병이 낫는지 알아보려 하매 아하시야가 무엇을 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아하시야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에그론은 팔레스타인의 도시 중 하나이며, 블레셋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가나안의 신 바알이 아니라, 블레셋 성읍에 있는 가나안의 신 바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스라엘에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블레셋에 있는 바알의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기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그들은 표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엘리야의 극적인 반응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이교도 신에게 물어보기 위해 블레셋으로 약 45~50마일을 내려가는 길에 있습니다.

엘리아가 그들을 만나 이르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지혜를 구하려면 외국에 있는 이방 신에게 가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이 이름 외에 이 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언급했듯이, 학습 안내서를 받았다면 Zevuv는 히브리어로 파리, 파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리의 바알, 파리의 군주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아마도 지난 몇 년 동안 기억할 소설의 제목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통치자들이 예수를 바알세불의 종이라고 비난할 때 신약성서에 다시 등장하는데, 바알세불은 유대 전통에 악신인 사탄을 대표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래서 흥미롭습니다. 아마도 이 Baal Zevuv는 죽음의 군주, 시체 주위에 모이는 파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그에게 질문이 제기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여호와가 아니며, 심지어 그들을 만나러 여호와의 땅에 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흥미롭게도 우리는 결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하시야는 여호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엘리아와 상담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몇 년 후, 유다에서 아하시야의 약자인 아하스라는 이름을 지닌 왕이 북쪽 이웃들의 위협 때문에 자신의 도시를 요새화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상의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왔습니다. 여호와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생에서 그를 피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를 만날 것이다. 당신은 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하시야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돌아가서 뭐하는 겁니까? 그러자 그들은 '우리는 길에서 이 사람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아마도 우리는 왕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아하시야가 말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겼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허리에 가죽 벨트를 두른 털이 많은 남자로 묘사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엘리야예요. 그렇다면 여호와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합니까? 당신은 그것을 믿습니까? 아,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니요, 그를 잡기 위해 군대를 파견합니다.

아하시야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왕은 그를 붙잡아 죽일 것입니다.

그는 자기 나라에서 이 등재를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전개되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봅니다. 50인의 대장이 언덕 꼭대기에 앉아 있는 엘리야에게로 올라갔습니다.

9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려오라, 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다. 자, 그것은 매우 흥미로운 문구입니다.

엘리야,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 이 두 사람은 거의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급됩니다. 그들이 선지자라고 불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언을 하는 문제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성격, 본성,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글쎄요, 그러면 그 선장이 조금 걱정을 했을 텐데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나 그 대장은 아하시야 왕의 종이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두 왕 사이의 갈등입니다.

왕은 누구입니까? 야훼와 그의 사자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 이니라 . 아니면 아하시야가 왕이고 그의 사자가 이 군인이냐?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리라.

그게 말이 되는 일이지, 그렇지? 바알과 야훼, 두 신 사이의 갈등의 증거는 무엇이었는가? 여호와와 그의 손에서 불이 이 백성에게 내렸느니라. 이제 두 왕 사이의 갈등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들은 죽습니다. 죄가 어떻게 우리의 인식을 파괴하는지가 흥미롭지 않나요?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매 백성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이르되 여호와와 하나님이니시라 하니

이제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왕은 또 다른 오십부장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넵. 글썄, 그는 왕이다.

그는 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갈 것이다. 이제 천부장이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며,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즉시 내려오세요. 우리는 그것을 강화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왕이 내려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왕이 지금 당장 내려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죄는 당신을 멍청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는 세 번째 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은 그의 왕보다 조금 더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제 생명을 살려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 그것에 대해선 사업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로 내려오세요.

그는 왕이 누구인지 알아냈습니다. 아하시야가 아닙니다. 야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서 내려가세요. 아하시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16절 저가 가서 왕에게 고하되 이스라엘에 당신이 물을 만한 신이 없으므로 당신이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뵘에게 물으셨나니 당신이 이 일을 하였으니 당신이 누워있는 침대에서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당신은 확실히 죽을 것입니다. 그 원인 진술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왜 죽게 될까요? 왜냐하면 그는 여호와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과연 여호와께 구하였더라면 살았겠느냐?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당신과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분명 우리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마주하게 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그때다. 두가지.

회개하고 믿으십시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으십시오. 아하스는 그 중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내가 바보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외국 땅에서 이방 신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 그는 여호와께서 참으로 우주의 왕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너와 나는 회개하고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이니라. 네, 좋은 소식이에요.